

EBS TV 동물일기
〈보아의 도전, 달려라 장군아!〉



2012년 2월 6일(월), 13일(월) 20:00~20:30

작은 미니핀 '까미'에서부터, 엄청난 먹성을 자랑하는 '케인', 늑대개 '줄줄이네 가족'과 늑대의 피를 받은 '장군이'까지. 대전에 사는 소녀 보아(9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개들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영향으로 새해에는 보아와 개 친구들이 모두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보아는 특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늑대개와 셰퍼드의 장점을 고루 갖춘 '장군이'를 데리고 개썰매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지요. 강가에 얼음이 얼면 어린 보아가 탄 고무대야를 끈질기게 끌어주던 장군이지만 10kg이 넘는 썰매는 버겁기만 합니다. 몇 걸음 못 가고 멈춰서기 일췌, 특히 언덕을 지나가면 하룻강아지들에게 시비나 걸고, 심지어 코스를 이탈해 옆에 있는 강으로 뛰어들려고도 합니다.

사실 힘들기는 보아도 마찬가지. 여섯 마리의 말라뮤트가 끄는 개썰매는 정말 신이 났었는데, 장군이 끄는 썰매는 세발자전거보다 느리고, 가끔 떨어질 각오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특별한 도전이 니만큼 닭국물도 먹어가며, 특급 마사지도 해주면서 훈련을 거듭하지만 야속하게도 대전에는 눈이 오질 않고, 눈밭에서 제대로 된 훈련 한번 할 수 없는 장군리와 보아는 도전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과연 장군리와 보아는 체감온도 영하 20℃의 눈밭에서 시속 45km로 달리는 다른 썰매개들과의 경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EBS TV 극한직업
〈인도 하수구 청소부〉

2012년 2월 8일(수)~9일(목) 22:40~23:10

상상을 초월하는 극도로 힘든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더더욱 많습니다. 인도 하수구 청소부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4명이 한 팀이 되는 인도 하수구 청소부는 하수구 바닥까지 내려가 퇴적물과 오물을 양동이에 가득 담고, 하수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료 인부들에게 양동이를 건넵니다. 하수구가 깨끗해질 때까지 이 과정은 되풀이되지만, 인도의 하수구는 십자 형태로 교차되어 파이프와 파이프끼리 연결되어 있는데 교차점을 깊게 파는 곳이 하수구가 됩니다. 이 하수구가 막히면 누수는 그것을 뚫어야 합니다. 하수구 청소를 하다 죽는 사람이 매년 늘어갈 정도로 힘든 직업이지만 노동자들은 오늘도 안전도구 하나 없이 양동이만 들고 맨홀이라는 생활의 전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한 대가는 한 달에 약 100달러(약 13만 5천원) 정도, 많은 작업 노동자들이 피부 발진과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지만 그들은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인 하수도, 정작 그 중요성만큼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도 하수구 청소부의 작업을 조명해보는 일은 단지 하나의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하루를 생생하게 관찰하는 데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극한직업 〈인도 하수구 청소부〉는 역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 노동의 그 숭고한 가치를 깨닫는 한편 점점 사라져가는 직업정신의 가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EBS TV 기획특집
〈2012년 성공 학습전략〉

2012년 2월 13일(월)~17일(금)
14:10~15:00

EBS가 수험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공개합니다. 각각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의 총 5편으로 구성된 〈2012년 성공 학습전략〉은 2012년 수험생활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종합적인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EBS 대표강사들이 총출동하는 〈2012년 성공 학습전략〉은 크게 '입시 이렇게 달라진다', '새학기 이렇게 공부하자', 'EBS 2012 커리큘럼', 'EBS 이렇게 활용하자' 등 4가지 테마를 통해 2013, 2014 입시 변화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수능 및 내신관리에서의 EBS의 중요성과 그 활용방법 및 대표강의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2012년 성공 학습전략〉은 각 영역별로 2명의 학생패널이 출연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EBS 교재와 강의로 성공적인 수험 준비를 이루어낸 '열공장학생'과 EBS 선생님이 추천한 학생패널은 수험생들의 실제 눈높이에서 현실적인 조언과 방법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열공장학생들의 조언을 통해서 수험생들은 힘든 입시를 이겨낼 수 있을 자신감을 얻고, 2013, 2014 입시 당사자인 고2, 고3 학생들이 방청객으로 출연해 나누는 질의 응답 시간은 수험생들의 고민을 함께 확인하고 고민해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또한 매년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성적을 이루기 위한 EBS 교재활용법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수능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EBS
2012.
FEBRUARY



EBS TV 하나뿐인 지구
〈검은머리물떼새가 들려주는 유부도의 겨울이야기〉

2012년 2월 7일(화) 23:20~24:00

천연기념물 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 암수 구분이 없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몸길이는 약 43cm 정도로 비교적 크며, 길고 붉은색의 부리와 핑크색의 다리를 가졌습니다. 머리와 가슴은 검은색이고 배는 흰색이라 마치 연미복을 차려입은 신사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검은머리물떼새들은 겨울이 되면 유부도를 찾아옵니다. 충청남도 장항과 전라북도 군산시가 경계를 이루는 금강 하구의 조그만 섬인 유부도는 서천 연안 인근 십여 개의 섬 중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인데, 검은머리물떼새의 90% 정도가 월동하는 동북아시아 최대 월동지이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동북부에서 날아와 서해 갯벌에서 겨울을 나는 검은머리물떼새는 물론 마도요, 흑부리오리 등 희귀조류가 유부도를 찾는 이유는 섬 주변으로 넓은 갯벌이 발달한 덕분이지요. 광활하고 풍부한 갯벌은 이곳 주민들과 철새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터전인 셈입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조개와 게가 갯벌에서 살아 숨 쉬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종의 미생물이 유부도의 갯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예전만큼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강 건너편 군산 산업단지 때문에 건설된 금강하구둑과 유부도 방파제, 도류제는 갯벌의 구성성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진흙과 거친 모래가 유입돼 황금빛을 띠던 갯벌은 어두운 흙색으로 변하고 마을주민과 새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조개는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숨겨진 보석 유부도의 빛을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EBS TV 기획특집
〈창업리더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

2012년 2월 6일(월)~7일(화), 13일(월)~14일(화) 12:10~13:00

청년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성공'에 목마른 청년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EBS 기획특집 〈창업리더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은 청년실업을 위한 구직에서 창업으로의 발상전환에 그 해결책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기업가의 지혜와 마음, 의지를 바탕으로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YES 리더'의 기업가 정신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으며 청년 실업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업리더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은 하유미팩으로 잘 알려진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제닉 유현오 대표, 미니 DSLR과 큐브로 등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세계 시장을 꿈꾸는 젤리버스 김세중 대표, 노점 상인으로 시작해 1억 연봉의 기업 대표가 된 석봉토스트 김석봉 대표 그리고 IT의 미래와 변화의 움직임이 풀어나가는 정지훈 교수 출연해 미래의 CEO를 꿈꾸는 청년기업가들에게 노하우와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창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창업에 성공하도록 달리고 있는 멘토들과 창업을 준비하려는 멘티의 만남을 통해 창업이라는 진로 선택으로 매력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고 든든한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